

돼지해에 돌아보는 돼지 땅이름(2)

배우리 부회장
(한국 땅이름 학회)

〈지난호 65쪽에 이어서〉

‘돼지’의 원래 말이 ‘돌’이었기 때문에 돼지 땅이름 중에는 ‘돼지’자 뿐 아니라 ‘돌’ 또는 ‘돛’이나 ‘돛’자가 들어간 것도 많다. 즉, 돼지가 많았거나 땅모양이 돼지 모양이면 ‘돼지골’이란 이름 외에 ‘돌골(돌골-돛골)’ 같은 이름이 붙는다.

4. 제주도는 돼지 땅이름의 고향

멧돼지가 많았거나 돼지 모양의 고개라고 해서 이름 붙은 곳은 ‘돼지고개’나 ‘돌고개(돌고개-돛고개)’가 된다.

‘돼지고개’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봉가리,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등 10곳에나 있고 ‘돌고개(돌고개-돛고개)’는 전북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충남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아산군 영안면 아산리 등 20여 곳에 있다.

‘돌고개’는 ‘돛재’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은 전남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등에 있다. 영덕의 ‘돌고개’는 돌(돼지)이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해서 마을 사람들이 풍수적으로 좋게 보아 고개가 깎아지 않도록 조심해 온 곳이다.

그 모양이 돼지 같다고 해서 이름 붙은 ‘돌섬(猪島)’은 경남 마산 앞바다, 거제군 장복면 유희리, 전남 고흥군 과역면 연등리 등에 있다.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의 ‘돌귀동(猪耳洞)’은 지형이 돼지 귀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라고 전한다.

돼지 땅이름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돼지를 많이 길러

왔던 제주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곳의 돼지 땅이름들은 거의 모두가 ‘돌골, 돌밭, 돌물’처럼 ‘돼지’가 아닌 ‘돌’자를 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옛 이름을 잘 간직해 올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과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에 각각 있는 ‘돌물’은 돼지에게 물을 먹인 우물이 있어 붙은 땅이름이고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돌바령’ 마을은 돼지가 많아서 바령(울타리)을 치고 돼지를 잡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북제주군 조천읍 와산리의 ‘돌질왓’은 돼지가 잘 다니던 길가의 밭이어서 붙은 땅이름인데, 지금의 표준말로 ‘돌길밭’에 해당하는 이 이름은 ‘돼지길의 밭’이란 뜻이 된다. 아마도 밭 근처로 돼지가 잘 지나다녔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보인다.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엔 돼지의 귀를 닮아 이름 붙은 ‘돌귀동’이 있는데, 한자로는 ‘저이동(猪耳洞)’이라고 한다.

북제주군 구좌읍에 있는 한 오름(산)은 ‘돌오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다른 말로는 ‘도너리오름’이라고도 한다. 산의 모양이 돼지 같다고 해서 나온 이름이라는데, 한자로는 ‘저악(猪岳)’이라고 쓰기도 있다.

서울에도 제주도의 ‘도너리오름’과 비슷한 땅이름이 있다.

은평구 불광동 수리봉 옆에 ‘돌너리봉’이라는 한 봉우리의 이름이 그것이다. 이것은 옛날에 산돼지가 마을로 많이 내려와서 곡식을 해쳤기 때문에 돌(돼지)이 내려온다는 뜻의 ‘돌내리’였던 것이 변한 이름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도너리봉'은 한자로 '저서봉(猪噬蜂)'이라고 쓰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봉우리가 마을에 부(富)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이 봉우리는 너무도 유명해서 그 밑에 있는 마을 이름 역시 '돌너리' 또는 '저서리(猪噬蜂)'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산의 한 등성이를 넘는 고개 역시 '돌너리재' 또는 '저서현(猪噬峴)'이다.

5. 가장 긴 땅이름은 '도야지둥그러죽은골'

돼지 땅이름 가장 긴 것으로는 '도야지둥그러죽은골'이라는 산골짜기 이름으로, 이 골짜기는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에 있다. 이 곳의 산이 험해 옛날에 산돼지가 뒹굴어 죽은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감리에 있는 '돼지목자른만댕이'도 긴 이름인데, 이 곳에서는 제사 지내려 돼지의 목을 잘랐던 곳이라고 한다. '만댕이'는 이 곳 사투리로 '산등성이'의 뜻이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는 '돼지명당(터)'이라는 곳이 있다.

뒷산에 사두혈(獅頭穴)이 있다 하여 그것을 막으려 일부러 돼지 형국을 만들어 놓아 이 이름이 붙게 되었다. 사두혈은 그 모양이 사자의 머리를 닮은 곳으로, 이런 곳은 풍수적으로 너무 그 기(氣)가 세다고 해서 큰 바위 같은 곳으로 눌러 놓는 것이 보통의 예인데, 여기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돼지를 준다는 뜻으로 '돼지명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자를 달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돼지 땅이름 중에는 특이한 것이 많다.

전북 남원군 운봉면 공안리이 '돼지무덤'은 향교에 제사 지낼 때 쓰던 돼지가 무덤이라고 전하고 제주시 회천동의 '돌죽은 산밭'은 멧돼지가 많이 잡혀 죽은 밭이라고 전한다.

6. 전설이 깃든 돼지 땅이름도 있고

전설이 깃들어 있는 돼지 땅이름도 있다.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에 있는 높이 350m의 '돌울음산(도드람산)'은 한자로 '저명산(猪鳴山)'이라 하는

데, 이런 전설이 전해 온다.

이 근처에 사는 한 효자가 홀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왔는데,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 몸져 누워 치료에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마을 앞의 산 절벽에 나는 약초를 뜯어다가 달여 드리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리는 소문을 듣고, 효자는 그 산으로 가 절벽에 난 그 약초를 뜯게 되었다. 그 약초가 절벽에 있었기 때문에 밧줄을 타고 내려가 그것을 뜯으려 하는데, 난데없는 멧돼지 울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이상해서 약초 뜯는 일을 중지하고 급히 그 돼지 울음 소리 나는 곳으로 올라와 보니, 돼지는 없고 자기가 타고 내려갔던 밧줄의 한 부분이 바위에 개개여 끊어지기 직전임을 알게 되었다.

하마터면 밧줄이 끊어져 죽을 뻔한 고비를 돼지 소리로 인해서 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밧줄을 다시 이어 그 약초를 구해 갈 수 있었고 어머니의 병도 고칠 수 있었다. 이 후부터 그 산을 '돼지 울음이 효자를 살린 산'이라 해서 '돌울음산(猪鳴山)'이라 하게 되었다.

전설이긴 하지만, 돼지는 이처럼 위급함을 면해 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미화되기도 했다.

돼지 땅이름들은 땅모양(地形)이나 그 형태(바위-봉우리 등의 모양)를 따서 붙인 것이 많은데, 이것은 다른 땅이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돌골 돌바위'처럼 '돼지'의 원말인 '돌'이 그대로 땅이름에 살아 있는 점은 돼지 땅이름의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복(福)과 재물모으기(得財)를 기원해 붙인 것이 많은데, 이것은 돼지를 부(富)의 상징으로 본 탓으로 볼 수 있다.

'돼지'와 전혀 관계 없는 곳인데도 일부러 '돼지'를 끌어다 붙인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그러한 이름을 붙임으로써 고을의 안녕과 부(富)를 기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 온 돼지는 이처럼 땅이름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새겨져 왔다.

돼지의 해.

올해는 나라나 개인이나 돼지처럼 살이 포동포동 찰는(부유해지는) 한 해가 되리라.